

그리스도왕 대축일

기도서 483면 (다해)

제 1독서 : 2사무 5, 1-3

제 2독서 : 골로 1, 12-20

복 음 : 루가23, 35-43

순정이

“예수님, 주님께서 왕이 되어 오실때에 저를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는 “오늘 내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루가 23, 42-43)

강론

소리

신부는 기생인가?

박 중신 신부/나운동천주교회

옛날에는 신부님들의 권위가 대단해서 신부님의 명령 한마디에 신자들은 벌벌 떨어야 했고, 순명만이 성인이 되는 유일한 지름길인 줄 알고 지내던 시절이 있었다. 신부님은 하느님이거나 그분의 대리자로 군림하여 잘못 걸리는 평신도는 병신 취급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 요즘 신자들은 사정이 많이 달라져서 여러가지 비판적 의견들을 서슴없이 제시하고 나선다.

예를들면 우리 본당신부 강론은 전혀 내용이 없고 공지 사항에 잔소리가 너무 많아 미사시간만 길어지고 지루하기 짝이 없다. 예배당에 다니다가 돈에기 듣기 싫어 성당으로 발길을 돌렸지만 매주일 돈에기만 들게되어 크게 실망하고 있다. 고스톱, 마작, 골프 등 취미 오락에 너무 깊이 빠져 있는 것 같다. 틈만 있으면 사제관은 비우고 신심단체나 공동체 건설에 무관심 하면서 어디로 돌아 다니는지 모르겠다. 돈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도 친절하게 웃으며 인사도 잘하면서 나같은 사람은 동냥아치 보듯이 인사해도 쳐다보지도 않는다 등등.....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스러워 깊은 반성을 해본다. 또한 이제는 장가 안갔다는 그 이유 한가지만으로 존경받고 큰소리치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다. 사실 신자들이 주일미사에 올 때에는 주님의 생명 넘치는 음성을 듣고 포근한 사랑의 위안을 받으며 평화와 기쁨을 느끼고 일주일간의 쌓였던 피곤과 스트레스를 다 날려보내고 싶어할 것이다. 새로운 용기와 활력을 얻어 다가오는 한주일을 힘차게 살아갈 희망을 만들고 성당문을 나서고 싶어할 것이다. 따라서 사제는 거룩한 미사중에 기쁜소식을 선포하고 평화를 심어주며 신자들의 영혼의 참된 기쁨과 새로운 가능성을 불러 넣어주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하는 것이다. 매일 성서를 읽고 묵상하며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의 명령에 귀기울이는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이다. 본당 사업을 할 때에도 몇몇 말잘드는 소수의 의견보다는 여러 사람들의 기탄없는 비판과 충고까지도 겸허하게 수용하는 폭넓은 아량이 필요하지 않을까? 신부가 품위없이 돈푼이나 있어 보이는 손님들에게 온갖 웃음과 야양을 떨면서 술을 따르는 술집 기생들처럼 부자들이나 부인들에게만 특별한 관심을 집중한다면 얼마나 한심한 일이겠는가 사제와 신자들은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는 가운데 서로 기도해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주님앞에 모두다 회개해야 하는 죄인들이기 때문이다.

해직 기자도 보상하라.

지난 80년대 서슬이 퍼런 5공화국 때 전국의 선량한 공직자가 직업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말았었다.

뿐만 아니라 사회의 목탁이며 거울인 수많은 기자들도 언론통폐합으로 직장을 잃게 됐다.

그들은 죽지못해 정부지도자들을 원망하면서 지금껏 용케도 살아왔다.

그런후 5공정부의 누우침과 과오를 인정받아 해직공무원들이 직장을 다시 찾았고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쥐 대들어 지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언론계통의 신문기자들만 지금껏 아무런 대꾸도 없는지 정부 당국에 물어보고 싶다.

기자들 중에서도 방송기자들은 충분한 보상과 복직으로 일단락 됐다는 보도다. 그렇다면 똑같은 언론인이며 기자인 신문기자들만 구제도 안되고 복직이 어렵다는 정부의 발뺌은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다.

복직은 해당 신문사의 어려운 인력조정 때문이라면 그 지경까지 몰아부쳤던 정부가 당연히 책임져야 마땅하다. 직업을 잃은 것은 공무원이나 기자나 마찬가지다.

누구 입만 입이고 누구입은 주둥이란 말인가?

통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2만여 명의 해직 기자가 지금도 직장을 잃은채 고통스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한다.

우리 전북도내만도 40명이나 된다고 하며 그중에 가톨릭 신자도 10여명의 형제가 끼어 있었다.

우리 교우가 많았대서가 아니라 전국에서 고생하는 형제들을 위해 위로해주고 복직과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느님께 기도를 부탁하고 싶다. 직장을 잃어버지 않은 사람은 그들의 아픔을 잘 모른다.

순정이 산책



성서주간을 맞이하여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맞이하면서 성서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성서주간의 목적은 우리 모두가 성서와 친숙해지고, 아울러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선포된 구원의 말씀을 되새기며 그 말씀에 감사드리고, 새로 시작되는 전례주년에도 성서를 변함없이 매일의 양식으로 받아들여지는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에 아직도 생생하듯이 지난 10월 초 한국 교회는 제44차 세계성체대회를 성대하게 거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성찬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닫고 이를 구체적인 생활에 옮기는 커다란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교회는 성체와 함께 또한 성서를 존중하고, 특별히 전례 거행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의 식탁에서 생명의 양식을 얻으며 신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계시현장, 21항). 성찬과 함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두 기둥을 이룹니다. "사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성서 안에서 당신 자녀들을 언제나 친절히 만나주시고 그들과 말씀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는 지탱해 주는 힘이 되고, 교회의 자녀들에게는 신앙의 힘, 마음의 양식, 영신 생활의 깨끗하고 마르지 않는 샘이 되는 힘과 능력을 간직하고 있습니다"(계시현장, 21항). 우리는 빵과 함께 말씀으로 (마

태오 4,4참조)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읽고 배우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성체대회의 뜻을 더욱 깊이 새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금년에 성서를 새로 번역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성서가 신앙과 교회의 기초를 이룬다고 할 때 지역 교회의 성숙도를 재는 척도의 하나가 얼마나 좋은 번역성서를 가지고 있는나일 것입니다. 이제 선교 300년에 들어선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래의 뜻대로 더욱 충실하게 우리 말로 옮겨 놓은 성서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많은 인력과 시간과 경제적 뒷바침이 요청되는 대작업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기대합니다.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성서를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라고 예로 니모 성인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서주간을 계기로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가 성서에 더욱 친숙해짐으로써 그리스도를 더욱 잘 알게 되도록 합시다.

말씀이 되시어 우리 사이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풍성한 축복을 내리시기를 빕니다.

1989년 11월 26일 그리스도왕 대축일

한국천주교회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위원장 강 우 일 주교

그리스도왕 대축일



그리스도 왕의 의미를 성대히 기리는 축일(10월 마지막 주일). 이는 구세사의 특수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을 경축하고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왕직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기뻐하며 세상이 그리스도왕의 통치로 인하여 새롭게 되도록 기원하는 축일이다. 교황 비오 11세는 당대에 흥기하던 무신론과 세속주의를 경계하고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개인과 가정과 사회 및 전 우주에 두루 미치고 있음을 강조하는 뜻에서 이 축일을 제정하였다(1925년).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어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고 왕으로서 영광을 받으셨으므로 그리스도왕 축일은 예수승천 대축일과 겹치는 면이 있다.

연지·곤지·웨딩드레스

약혼복·무대복·미혼대여
비디오·아이스빙촬영
신부화장
유 순례(가터리나)
전동성당 시내버스 승강장
☎ 82-2347

패션핸드백의 명품 美米星 미성핸드백

취급품목: 남녀핸드백, 지갑007
서류가방및여행구입제
하 명희 (미카엘)
김 혜경 (글라라)
신주 코이백화점1층
☎ 80-1140

फल 불치병 상담소 중풍·관절염·디스크 신경통 자연식품 및 송죽 알로에 전문점

주부사원모집
☎ (사) 251-0848
(자) 82-3271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춤·대여 최 윤경 (유리안나) 미용실·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해인 연수생 모집
이리시 중앙동3가 7-1
☎ 3-2496·2-8653

☐ 임순남·무진장 본당소식 ☐

*남원

사제관 33-1004 주임신부 고 경 훈
사무실 33-4004 보좌신부 이 사 정
수·유 33-4005 사목회장 윤 기 호

※ 전주교구 치명자산 성지개발에 다함께 참여합니다. 오늘2차현금
있겠습니다.

- 11월 위령성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가신 조상님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미사봉헌과 기도드립니다.
 - 12월은 대림시기: 열심과 환희의 기다림의 달입니다. 또한 불우 형제 자매들을 도웁시다. 각가정에서 줌도리 준비합시다.
 - 성전건립 기금마련 첫감판매: 각 가정이 참여 함으로써 성전 건립에 힘이 되겠습니다. 빵판매 이득금-팔만오천오백원 부너부 수고하였습니다.
 - 부녀부 운영위원회: 28일 오후2시30분 성모회 월례회-다음주 공식미사후
 - 12월 첫주부터 판공표 드립니다.(교부금 완납합니다.)
 - 오늘 공식미사후 사목회장 선출: 전신자 투표에 참여 합니다.
 - 차주전례: 해설-김조곤 독서-이동수부부
학생미사: 해설-김은영 독서①임기택 ②이혜정
- 지난주봉헌금: 551,300원 □ 교무금: 144,430원

*무주

사제관 22-2308 주임신부 오 현 택
사무실 22-2398 사목회장 이 정 하
수녀원

- 울드레아: 11월26일(목) 오후6시
- 판공일정: 괴곡판공-오늘 오후2시, 월곡판공-11월29일 오후2시, 기곡판공-11월30일(목) 오후2시

- 판공준비: ①시간엄수 ②교부금 납부요망 ③90년도 교부금 신입
- 금주공소미사: 괴곡판공 오후2시 차주공소미사: 설천판공 오후2시

금주전례: 해설-윤혜자 독서①장기집 ②고연화
봉헌-이태근 부부
차주전례: 해설-태남순 독서①김종례 ②윤혜자
봉헌-신민철 부부
□ 지난주봉헌금: 102,250원 □ 교무금: 295,000원
□ 지난주미사참례수: 남31명, 여72명 총103명

*순창

사제관 53-0414 주임신부 박 기 준
사무실 2-2234 사목회장 홍 석 열
수녀원 2-3135

- ※ 금주의 성서: 골로1,12~20 루가23,35~43
※ 오늘은 그리스도왕 대축일입니다.
- 꾸리아: 오늘 공식미사후
 - 공소판공일정: 석동-29일 11시 대동-27일(월) 후2시 중앙-27일(월) 오후7시(1박) 북흥-28일(화) 오전11시 학선-28(화) 오후6시(1박) *공소판공관계로 28(화) 미사없음
 - 사목회: 12월2일(토)-후7시30분
 - 다음주일은 성소후원을 위한 2차현금 있음
 - 금주전례: 해설-안정일 독서① ②장현순
봉헌-박인표씨 부부 안내, 청소및 기도-예언자들의 모후
 - 차주전례: 해설-김성애 독서①홍석열 ②신은희
봉헌-강동호씨 부부 안내, 청소및 기도-사도들의 모후
- 지난주봉헌금: 101,110원 □ 교무금: 168,000원
□ 2차현금: 36,800원

*임실

사제관 43-3661 주임신부 박 인 호
사무실 42-2164 사목회장 한 장 현
수녀원 42-2164

※ 오늘은 그리스도왕 대축일입니다. (C해 마지막 주일)
다음주일은 대림1주(A해 시작)
□ 지난주봉헌금: 166,440원 □ 교무금: 572,000원

주여! 저들에게 길이 편한함을 주소서

*장계

사제관 351-0111 주임신부 박 진 랑
사무실 사목회장 이 환 구

- ※ 오늘은 그리스도왕 대축일입니다.
- 대림절 사람의 나눔: 어려운 이웃과 장애자를 위한 성미, 성금 접수합니다-사무실에서 1989년도 성탄절도 어려운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눕시다.
 - 사목회 정기총회: 12월1일 금요일 오전10시 사제관에서 사목회 회원친원, 구역의장, 공소회장님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을 바랍니다.
 - 가을판공 안내: 1989년도 가을판공을 아래와같이 알려드립니다.
①12월5일(화)매계공소 오후3시도착 ②6일(수)연동공소 오후3시도착 ③7일(목)월현공소 오후3시도착 ④12일(화)내동공소 오후3시도착 ⑤13일(수)신촌,새재 오후3시도착 ⑥14일(목)춘송,삼교 오후3시도착 ⑦15일(금)쌍암공소 오후3시도착
 - 본당판공: 12월19일~20일 양일간 본당판공 오후2시부터 21일(목) 병자방문, 판공 영성제
 - 교무금: 1989년도 미납된 교부금을 완납합니다.
 - 공소미사: 금주-26일 내동공소 저녁7시30미사 차주-없음
- 지난주봉헌금: 106,350원 □ 교무금: 305,000원
□ 2차현금: 43,100원

*장수

사제관 4-2264 주임신부 강 덕 행
사무실 사목회장 윤 장 철

- ※ 오늘은 그리스도왕 대축일입니다.
- 오늘은 줌도리 봉헌주일입니다.
 - 수분공소 가을판공: 금일 저녁7시
 - 신입하신 미납된 교부금 납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당신축을 위한 100만단봉헌: 본당-350단 성실하신 모후Pr-490단 평화의 모후Pr-935단 치명자의 모후Pr-64단 합계1,839단 누계449,336단
 - 금주전례: 해설-신난희 독서-구세주의 모후Pr
기도-사도의 모후Pr 봉헌-구세주의 모후Pr
차주전례: 해설-김미숙 독서①이영오 ②장복희
기도-청년회 봉헌-박동표씨 부부
- 지난주봉헌금: 78,300원 □ 교무금: 180,000원
□ 번암공소: 33,200원

*진안

사제관 33-0750 주임신부 박 찬 길
사무실 2-2541 사목회장 함 연 국
수·유 2-2293

- ※ 오늘은 그리스도왕 대축일이며 연중 마지막 주일. 다음주일부터 대림시기(A해 시작)
- 감사: 추수감사제에 협조해 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모임: ①사목회 상임위원회의-오늘저녁 7시30분 ②구역반장 회의-다음주일 공식미사후
 - 교육: ①예비자 교리-매주일 공식미사후 유치원에서 ②신앙강좌-매주 목요일 저녁미사후
 - 판공안내: 28일 오전10시-거석 오후4시-장제동, 29일 오전10시-판치 오후4시-소토실, 12월1일 오전10시-양지
 - 금주평일미사: 월, 화, 수, 금-아침6시30분 목-저녁7시
 - 금주성당청소: 균하리1반 수고해 주세요.
 - 금주전례: 해설-김남기 독서①조선행 ②송옥희
기도-송옥희 봉헌-유충상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최상열 독서①이당계 ②안차숙
기도-안차숙 봉헌-조귀준씨 부부
- 지난주봉헌금: 308,660원 □ 교무금: 965,000원
□ 2차현금: 123,940원